

비틀즈 읽기

얼마 전, 지난 20세기에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음반을 판매한 가수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음반산업협회(RIAA)는 1958년 이후 미국 내 음반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영국 출신의 4인조 팝 그룹 비틀즈(The Beatles)가 1억 600만장을 판매해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점에 프랑스의 르 몽드지가 설문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영화, 책, 음반 부문의 20세기 1백선(選) 에 의하면 음반 부문에서 비틀즈의 앨범 에비 로드 (Abbey Road)가 선정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밖에 국내외의 이와 비슷한 각종 조사 결과에 있어서도 거의 예외 없이 비틀즈를 20세기 최고의 대중가수로 꼽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발표들을 종합해 볼 때 비틀즈가 20세기를 대표하는 지구촌 제 1의 대중음악가라는 평가를 공인(公認)된 사실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이 이렇듯 비틀즈를 20세기 최고의 대중 음악가의 자리에 올려놓았을까요?

평론가들은 무엇보다도 이들의 천재적인 음악적 재능과 풍부한 예술적 창의력, 그리고 모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틀즈는 1960년대에 로큰롤이라는 당시의 새로운 문화 양식 속에 다양한 대중음악의 요소들을 끌어 들여 음악적 영역을 크게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클래식과의 접목을 시도하는 등 20세기 대중음악의 예술적 다양성과 질을 한 차원 끌어올린 공로를 인정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탐구와 실험정신을 바탕으로 작곡과 연주에 있어서 늘 새로운 형태의 음악 개발에 도전하였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만들어 낸 음악의 유형들이 20세기 대중 음악의 전형(典型)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틀즈의 노랫말들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서 다양한 개인의 이야기로부터 정치, 사회, 종교, 나아가 마약 체험에 이르는 광범위한 주제들을 다루어 6,70년대와 그 이후 지구촌 젊은이들의 의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렇듯 비틀즈는 20세기 세계의 대중음악 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상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대표적 대중예술가로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비틀즈와 그들의 음악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비틀즈가 한 때, 마약과 관련되었던 점과 힌두교 추종 사실 등을 들어 뉴 에이지적 음악가로 분류하여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비틀즈의 음악을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실 비틀즈의 음악은 너무 매력적이어서 쉽게 끌리고, 한번 좋아하게 되면 좀처럼 질리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음악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이들의 철학과 사상에 매료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예술적인 노래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음악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비틀즈의 'Yesterday'와 같은 노래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비틀즈에 대해 취할 태도는 결코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그들의 예술적인 성과와 창조적 업적 등은 인정하되, 그들의 비 기독교적인 사상에 대하여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비틀즈의 음악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지구촌 음악팬들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들은 새로운 세기에도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요17:16) 크리스찬으로서의 신분을 늘 명심하면서 우리 주변에 흐르는 대중문화들에 대하여 거부할 것과 누릴 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강인중/ 음악평론가

☼ 청소년과 함께하는 QT나라 , 「 새벽나라 」 제공

<http://isena.com/>